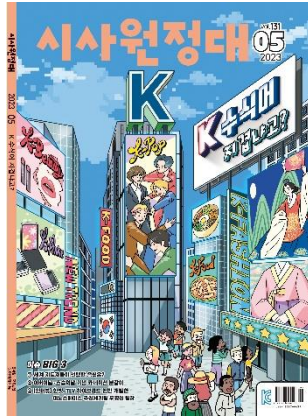


# 시사원정대 NIE 2023-5월호



##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 교재 들여다보기

###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3주 (90분)		
학습 목표	인공지능(AI) 개발을 두고 부딪치는 두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주장을 정한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어린 시절을 참고해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세운다. 화재의 위험을 되새기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화재 예방법을 상상해 본다.		
활동 초점	-챗GPT의 등장으로 생긴 논란을 이해하고 AI와 함께 하는 미래를 상상해본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본다. -최근 강릉에서의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화재의 위험과 예방 필요성을 이해한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b>47~49 맞춤형칼럼</b> - 부작용 많은 AI 계속 개발해도 될까?	- 챗GPT - 인공지능(AI)의 역할과 부작용	25
	- <b>68~71 리치왕을 만나다</b> -[영감 부자]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작품과 어린 시절 - 다양한 진로 탐색	25
	- <b>92~95 과학지식배틀</b> -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	- 타지 않는 나무, 화재 조준 로봇 - 화재의 위험	3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자신이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를 떠올려 보고 그 영화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연결 지어서 이야기해 보자.	5

[3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3주		
학습 목표	인공지능(AI) 개발을 두고 부딪치는 두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주장을 정한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어린 시절을 참고해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세운다.		
활동 초점	-챗GPT의 등장으로 생긴 논란을 이해하고 AI와 함께 하는 미래를 상상해본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b>47~49 맞춤형칼럼</b> - 부작용 많은 AI 계속 개발해도 될까?	- 챗GPT - 인공지능(AI)의 역할과 부작용	20
	- <b>68~71 리치왕을 만나다</b> -[영감 부자]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작품과 어린 시절 - 다양한 진로 탐색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캐치북활용) 활동 안내	- 자신이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를 떠올려 보고 그 영화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연결 지어서 이야기해 보자.	5

## 맞춤칼럼

### 부작용 많은 AI, 계속 개발해도 될까?

<어휘 UP>

인공지능(AI): 인간처럼 배우고 추리하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챗 GPT 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하는 로봇(챗봇)에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문장, 오디오, 이미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비슷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됨.

표절: 남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내 것처럼 씀.

경우의 수: 한 번의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짓수.

워터마크: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부호 등을 삽입하는 것.

찬사: 칭찬하거나 찬양하는 말이나 글.

<발문>

1. 챗GPT가 등장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정리해 본다.
2.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누리게 된 좋은 점과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점을 각각 적어보고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워즈니악 "AI개발 6개월 중단"… 빌 게이츠 "문제 해결책 아냐"

"GPT-4를 능가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등)

"AI 개발을 일시 중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전 세계 정보기술(IT) 리더들을 중심으로 AI 개발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AI에 대한 공포심이 과장돼 있다며 개발 중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측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 'AI 개발 6개월 중단' 두고 IT 업계 찬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딥러닝AI(DeepLearning.AI) 창립자이자 스탠퍼드대 겸임교수인 앤드루 응은 8일(현지 시간) 온라인으로 'AI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는 것이 왜 나쁜 생각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AI 전문가인 메타의 안 르퀼 부사장 겸 수석 과학자 등이 참가한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28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삶의 미래 연구소(FLI)'가 '모든 AI 연구소에 GPT-4보다 강력한 AI 개발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발표한 공개 서한이 발단이 됐다.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 등 수천 명의 명사가 동의 서명했다.

반면 AI 개발에 우호적인 IT 전문가들은 개발 중단론자들이 생성형 AI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맞선다. FLI의 공개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던 르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AI를 중단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유용하고 유익한 기술의 위험성을 꾸며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이츠 공동창업자는 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그룹에 AI 개발 일시 중단을 요청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분명한 건 이 기술에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AI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회의에서 "AI가 질병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와 사회에 미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전 세계 IT 리더들이 AI 개발을 두고 공개적인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AI의 확산이 미칠 영향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다. 무분별한 AI 개발이 인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측과 AI가 일상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줄 좋은 '도구'가 될 것이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AI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오픈AI와 나머지 IT 업체 간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 각국 생성형 AI 규제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등 생성형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세계 각국에선 관련 규제 논의가 한창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이유로 챗GPT 접속을 잠정 차단하기로 했다.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등도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챗GPT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에 대응할 만한 관련 법안 마련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AI 관련 규제를 우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도 AI 기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원칙이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불러올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찬반 논쟁이 아닌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때라고 강조한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 교수는 "AI 자체를 적으로 두고 싸우는 것은 반지성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3-04-07]

## 슈퍼리치를 만나다

### [영감 부자]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영화로 펼쳐낸 영감

<어휘 UP>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자극.

블록버스터: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큰 돈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 이런 영화를 제작하려면 대규모 세트와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하며 다양한 특수 효과 등이 사용됨.

아카데미 시상식: 1929년부터 이어져온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로 '오스카 시상식'이라고도 불림.

매료: 마음을 사로잡힘.

공상과학: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 또는 우주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다룬 영화.

자전적: 자기의 생애나 생활 체험을 소재로 하는 성격을 가짐.

<발문>

1.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사례처럼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소재를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자.
2.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삼는 '자전적'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자.

<교사 참고자료>

영화와 사랑에 빠진 꼬마 스피버그의 성장담 '파벨만스'

'쥬스'(1975년) 'E.T.'(1982년) '쥬라기 공원'(1993년) '마이네리티 리포트'(2002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양 손에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내놓은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자전 영화 '파벨만스'로 돌아왔다. 영화는 그의

유년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와 사랑에 빠지게 된 과정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렸다. 그는 촬영 내내 많이 울었다고 고백했다.

영화는 어린 새미(마테오 조리안)가 엄마 미치(미셸 윌리엄스), 아빠 버트(폴 다노)와 함께 처음 극장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스피버그 감독이 자신의 첫 영화 경험이라고 밝혔던 '지상 최대의 쇼'(1952년)다. 기차가 화면을 뚫고 지나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장면은 새미의 뇌리에 충격적일 만큼 생생하게 박힌다. 이후 장난감 기차와 아빠의 8mm 카메라로 그 장면을 똑같이 재현해낸다. 꼬마 스피버그의 첫 영상 제작이다.

새미의 영상 사랑을 가장 든든하게 지원해 준건 엄마 미치였다. 공학도인 아빠가 영화의 24프레임 원리를 알려줬다면, 피아니스트인 엄마는 "영화는 잊히지 않는 꿈"이라며 새미의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춘다. "우리집엔 과학팀과 예술팀이 있는데 새미는 나를 닮은 예술팀"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새미(가브리엘 라벨)는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을 동원해 전쟁영화를 만들기 시작한다. 폭파나 섬광 같은 원초적인 수준의 시각효과를 연구하고, 부상도 실감나게 분장한다.

가족사의 어두운 부분도 가감 없이 영화에 담았다. 새미는 가족 캠핑 촬영 영상을 편집하다가 아빠의 동료이자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 베니(세스 로건)와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장면을 빼놓고 아름답게 캠핑 영상을 만들어내지만 엄마에 대한 애증으로 영화 제작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린다. 그리고는 자신이 발견한 베니와 엄마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엄마에게 보여준다. 이후 새미의 가족들은 베니와 먼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지만, 엄마는 가족들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거장 스피버그 감독에게도 이 영화는 각별하다. 그는 지난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영화로 작품상·감독상을 받고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영화화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인정했다. "이것을 영화화하기로 한 결정은 내가 넘어야 할 선 중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고도 했다. 어린시절 겪은 부모님의 이혼과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엄마에 대한 뒤엉킨 사랑과 원망 등이 영화에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이야기를 60년 넘게 아버지나 여동생과 나누지 않고 엄마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했다고 한다.

자전영화인 만큼 고증에도 공을 들였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스피버그의 집을 그의 여동생들의 기억까지 되살려 그대로 구현했고, 부모님역 배우들의 의상과 걸모습도 유사하게 분장했다. 그 탓에 스피버그 감독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미셸(엄마 역)과 폴(아빠 역)이 분장을 마치고 왔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서있었다”며 “눈물이 터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울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완성된 집 세트장을 보고서도 울컥했고, 음악 감독이 만든 엄마와 아들 테마곡을 들을 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캐스팅에도 공을 들였다. 스피버그 감독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 새미 역에 누구를 캐스팅할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캐스팅에 앞서) 내가 과연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스스로 질문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미 역의 신예 가브리엘 라벨은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배역을 따냈다.

[동아일보 2023-03-23]

## 과학지식배틀

### 불이야! 첨단 기술로 화재 걱정 뚫

<어휘 UP>

화재: 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로 인한 재난.

진공: 공기 같은 물질이 전혀 없는 공간.

방염재: 불에 타지 않도록 화학 처리를 한 재료.

송레문: 서울 한양도성 남쪽에 있는 문이자 우리나라 국보. 2008년 갑작스런 화재로 크게 훼손된 후 5년여 만에 복구됐다.

스프링클러: 화재를 감지해 천장에서 소화액을 뿌리는 장치.

군수품: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자원.

<발문>

1. 환경을 보호하는 신개념 제품을 찾아보고 일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지 발표하자.
2. 일주일 동안 집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계획표로 작성해보자.

### <교사 참고자료 1>

#### 올봄 화재 6302건 잇따라...357명 사상, 전년비 13.3% 늘어

올해 3월 들어 발생한 화재로 피해 입은 인원이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발생한 화재는 총 630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39건보다 20.3%(1063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장소별로는 임야(210건), 주거시설(165건), 상업시설(8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 불로 35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5명에 비해 13.3%(42명) 더 많았다.

최근 10년(2013~2022년)으로 넓혀보면 연평균 4만1257건의 화재가 발생해 317명이 사망하고 1969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지난해 큰 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5년 4만4435건→2016년 4만3413건→2017년 4만4178건→2018년 4만2338건→2019년 4만103건→2020년 3만8659건→2021년 3만6267건→2022년 40113건이었다.

인명 피해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2664명(사망 341명, 부상 232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화재의 대형화로 인명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경향을 띤다.

인명 피해 유형별로는 사망의 경우 연기·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연기·유독가스 흡입(25%), 화상(9%) 순이다.

부상의 경우 화상(46%), 연기·유독가스 흡입(31%),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를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되 불길이 커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 산불 현장에서는 불길을 등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대피 시에는 가능하면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정전에 대비해 반

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탈출 후 열었던 문을 닫아두지 않으면 산소가 유입돼 화재가 빠르게 확산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돼 매우 위험해진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 현관으로 탈출이 어려우면 발코니 쪽 옆집과 연결된 피난용 경계벽이나 완강기 등을 이용해 바깥으로 빠져나오거나 비상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불이 났을 때는 주변에 알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3-04-24]

## <교사 참고자료 2>

**[출동! 어린이기자] '말하는 소화기' 만든 소방관들,  
"작은 발명으로 소중한 생명 지켜요"**

"일, 안전핀을 뽑으세요. 이,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세요. 삼,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을 쏘세요." 소화기가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사용법을 안내한다. 이 신기한 소화기의 이름은 '말하는 소화기.'

말하는 소화기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속 홍의선 소방경과 백정열 소방장이 소화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개발한 것. 지난해 9월 경

기도가 주최한 아이디어 공모전 '영아이디어 오디션'에서 1등 상을 받기도 했다.

말하는 소화기는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전국에서 2만7000대가 넘게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어떻게 이런 소화기를 만들게 되었을까? 두 소방관을 동아어린이기자 배강민 군(경기 군포시 부곡중앙초 4)이 경기 수원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최근 만났다.

## ○ 친절한 소화기 만들다

배 군이 "어떤 계기로 말하는 소화기를 만들게 되셨나요"라고 질문하자, 백 소방장은 "소화기 사용법이 간단한데도 사용법을 몰라 화재가 커지는 일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불이 나서 당황하면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소화기가 직접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백 소방장)

'소화기에서 사용법 순서대로 음성 안내가 나오면 좋겠다'는 두 소방관의 아이디어에 따라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과 태산전자에서 각각 다른 버전으로 소화기를 만들었다.

말하는 소화기의 작동법은 간단하다.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만든 첫 번째 버전은 소화기 앞에 부착된 음성장치의 버튼을 누르면 사용 순서에 따라 안내 멘트가 2번 흘러나온다. 태산전자에서 만든 두 번째 버전은 소화기가 15도 이상 기울어지면 음성장치에 있는 각도기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안내 멘트가 나온다.

'안전핀' '노즐' '손잡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 스티커도 각 부분에 큼지막하게 붙여 있어 처음 소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다. 음성장치의 배터리 수명은 10년으로 소화기 수명과 같다.

말하는 소화기는 사용의 편리함 덕분에 경기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의 집에 무료로 보급되어 있다. 홍 소방경과 백 소방장은 "애써 만든 소화기를 많은 사람이 찾아주니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 화재 대피 연습해요

“어린이들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배 군이 묻자 홍 소방경은 “부모님과 함께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대피 지도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집에서 불이 났을 때 가족들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고 연락을 할지 미리 집 구조를 그려보면서 익혀두면 좋다는 것.

“불이 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현관을 통해 대피하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빠져나갈 수 없을 때는 집 안에 마련된 화재 대피 장소에 숨어서 빨리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홍 소방경)

백 소방장은 “소화기 사용법을 안다고 해도 어린이들은 불이 나면 일단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아주 작은 불씨는 소화기를 이용해 끄면 되지만 불씨가 커튼이나 가구에 옮겨붙어 커지는데도 소화기로 끄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이들은 화재를 예방하는 데 있어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잦아요. 난방제품은 사용 후에 꼭 플러그를 뽑고 향초나 난방기기를 켜놓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의 작은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화재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홍 소방경·백 소방장)

[어린이동아 2017-11-26]